



통권 제 200호

강남, 라 00943

2564
2020

06

십전성취
아름다움에 대한
단상



디'민트리
정기도 양평
두물머리



식물이야기 3
오리부종을
즐기다



우드 다라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불교총지종

해탈은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인격완성에서

해탈은 인간의 현실적 생애 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격세적_{隔世的}인 생존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형이상학적 실재_{實在}의 일치나 윤리적 선_善의
완성이나 또는 인생을 방관하는 체념 혹은 허무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주와 인생의(여실히 보고 아는데에 의한) 진리를 깨뚫어
보고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인격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위드 다르마

다르마 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 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불교총지종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중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 불국정토를
염원합니다.



계율이야기 12

여성의 출가와 계율
법경 정사

지혜의 뜨락 38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방귀의

동행 60

당신의 트롯맨은
누구입니까?
고진의

04 불교이야기

10 마중물

12 계율이야기

18 살다보면

24 향유

28 산책

30 아름다운 세상

34 마음의 등불

38 지혜의 뜨락

42 십선성취

46 씨앗 한알

52 디딤돌

56 식물이야기

60 동행

64 차향기

68 걸망에 담긴 이야기

70 독자기고

72 뜻 바루기

74 되짚어보기

76 컬리링 만다라세상

선정의 종류와 단계 3 화령 정사

부처님 전상서 前上書 - 극락행여권 법정 스님

여성의 출가와 계율 법경 정사

참 감사합니다 이옥경

재가불교의 나아갈 길 서령 정사

구주령 김대곤

자비선 입장에서 본 명상과 깨달음 5 묘원화 전수

재난을 이겨내는 방법 신흡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방귀의

아름다움에 대한 단상 남예 정사

운명을 뛰어넘는 부처님 말씀 中 법상 스님

내 마음의 휴양지 통영 사랑도 자성 전수

오리무중을 즐기다 안개초-Baby's breath 이태용

당신의 트롯맨은 누구입니까? 고진의

찻잎을 따는 시기에 따른 차 종류 김정애

멀리 달아나면 커지는 괴물 법일 정사

야생화를 심어요 여순애

심밀 心密 김재동

면목 面目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역경

역경은 사람을 만들 수 있고 파멸 시킬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는 갈림길입니다.
힘과 행복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오래가는
고통의 원인도 될 수 있어요.

역경이 있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부정적인 마음의 습관을 주의해야 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절망에 체념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는 것은 쉬워요.
용기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용기는 절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이 커질 공간을 주지 않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역경이 생각 만큼 어렵지 않고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역경은 인간이 되는 입문입니다.
부처님의 가파입니다.

Adversity can make a person or break a person.

It is the crossroads where we can go up or down.

It can become a source of happiness and strength, or it can become a source of prolonged suffering.

In times of adversity, we must become all the more vigilant and alert to the negative workings of the mind.

Do not become lax. It is crucial to not give into despondency.
We must not lose hope.

Giving up is easy. Courage is about not giving up.

Courage is not about getting rid of discoura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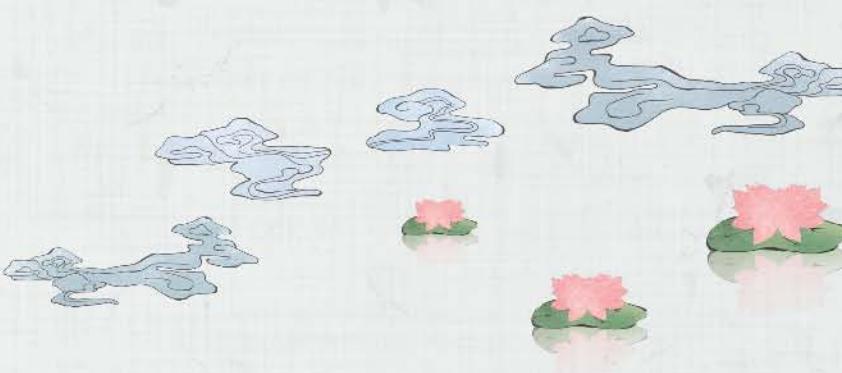
It is to not give into it. If we don't give room for despondency to grow, and we don't give up on hope; then adversity is not as bad as we think, and it doesn't last as long.

- 용수 스님(세천코리아 명상센터) -



선정의 종류와 단계 3

화령 정사
철학박사
법천사주교
보디미트라 회장



불교의 선정에는 초선, 제2선, 제3선 그리고 사마타와 위빠사나가 균형을 이루는 제4선이 있습니다. 즉 지^지와 관^관이 균형을 이루어 열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색계사선입니다. 그래서 제4선을 가장 이상적인 선정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입멸하실 때에도 이 색계 제4선의 상태에서 입멸하셨다고 합니다.

근본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색계사선을 얻기 위해서는 그 예비단계로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신의 통일과 집중을 얻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비 단계의 선정을 육계정이라고 합니다.

육계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정신집중과 통일은 되지만 우리의 오관에 대한 욕구와 의식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옆에 무슨 소리가 나면 귀가 기울여지고 그게 무슨 소리인가 분석도 하게 됩니다. 혹시 이쁜 여자가 날 부르는 소리는 아닌가 귀가 좋글해지기도 합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면 먹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정신을 집중하여 자기의 의식을 제어하려고 합니다.

육계정은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의 선정이지만, 이러한 육계정을 반

복하여 열심히 수행하면 어느 한 순간 색계의 근본정이 얻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는 지속되지 않고 곧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복하여 수행하면 점점 쉽게 색계초선에 이를 수가 있고 또 오랜 시간 이러한 경지에 머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한결 쉽게 되어 자유자재로 색계정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욕계정은 초선에 들어갈 때뿐만 아니라 초선에서 제이선에 들어갈 때에도 역시 욕계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초선의 근본정에서 제이선의 근본정에 들어갈 경우에 욕계정이라는 예비단계가 필요한데, 이것을 미지정^{未至定}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삼선, 제사선에 대해서도 마찬 가지여서 반드시 욕계정을 거쳐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단계의 선정이든 높은 단계의 선정에 곧바로 들어간다는 것은 실제로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욕계정을 거치는 시간이 극히 짧기는 하겠지만 형식상으로는 마음이 집중되기까지에는 욕계정을 거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이선 내지 제사선, 그리고 그 윗 단계인 사무색정에 들어가기 전의 욕계정을 특히 근본정^{道分定}이라고 합니다. 미지정이든 근본정이든 모두 욕계정에 속하지만 이러한 예비정은 그 직후에 일어나는 근본정과 유사한 상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초선의 예비정인 미지정은 초선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기쁨과 육체적인 안락함이 있고, 제삼선의 근본정은 제삼선과 마찬가지로 고와 낙을 버린 편안함이 있으며, 제사선과 그 위의 무색정의 근본정은 그 근본정과 마찬가지로 불고불락의 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부파불교에서 세밀하게 나누어 놓은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단계의 선정에 이르든지 반드시 기초단계라고 할 수 있는 욕계정의 상태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불완전한 선정인 욕계정이라도 반복하여 수련하면 더 높은 단계의 선정에 쉽게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선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 욕계정입니다. 즉, 욕계정에서 색계초선으로, 그리고 색계초선에서 다시 제이선으로, 제이선에서 다시 제삼선으로 이렇게 점차 단계적으로 경지를 높여가는 것이 불교의 수행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의 올바른 방법도 모르면서 화두 하나 들고 뭔가 단박에 깨쳐보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참선한다는 사람은 많아도 제대로 지혜가 뚫린 사람이 드문 것은 아마 선정의 방법이 체계적이지 못하거나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법에 매달려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제시하신 불교 본래의 선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무시하고 중국에서 전해진 여러 가지 비정통적인 참선방법에 매달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

여집니다. 물론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발달한 여러 가지 참선방법이 전혀 소용없다는 뜻이 아니라, 근본경전에 나타난 여러 가지 방법들과 비교해 볼 때 중국 선종의 참선 방법이 너무 비약적인 면이 있고, 또 비효율적이며 대중적이지 못한 면이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정의 종류와 단계에 대해 공부하고 선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깨달음을 열어가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수행하지 않고 비정통적인 방법으로 깨달음을 얻으려는 것은 마치 지도도 없이 등산하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상과 같이 욕계정을 지나 색계정에 이르고 나서도 선정의 단계로는 더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즉, 마음을 고요히 멈추게 하는 지의 작용과 고요한 마음으로 관찰하는 관의 작용이 균형을 이루는 색계사선에서 더 나아가 적정심_{寂靜心}의 더욱 깊은 경지를 바란다면 무색계정에 이르게 됩니다.

무색계정은 무념무상의 지의 작용에 치우친 선정입니다. 무색계라는 것은 색, 즉 물질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로서 이 경지에서는 호흡만이 아니고 자기의 육체나 외계의 존재까지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경지입니다. 이것이 더욱 진전되어 물심의 일체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게 되는 무념무상이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무색계의 선정의

경지에도 그 깊이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공무변처정_{空無邊處定}, 식무변처정_{識無邊處定}, 무소유처정_{無所有處定}, 비상비비상처정_{非想非非想處定}의 사무색정_{四無色定}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멸진정_{滅盡定}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정의 단계는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설정되어있는 것으로서 역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와 관이 균형을 이루는 색계사선이 가장 이상적인 선정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부처님 전상서 前上書

- 극락행여권

법정 스님
1932년 ~ 2010년
조계종 스님
길상사창건



부처님!

극락행여권을 발급하고 있는 테가 있다면 세상에서는 무슨 잠꼬대냐
고 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 암흑의 계절 중세가 아니라, 오늘
당장 이 자리에 있는 일입니다. 그것도 푸닥거리나 일삼는 <무당집>에
서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도 손꼽는 대찰들에서 벼젓이 백주에 거래
되고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다라니>라는 것을 찍어서 돈을 받고 팔고 있습니다. 야시장도 아
닌데 이런 넋두리까지 겹쳐서 「극락으로 가는 차표를 사가시오」하고-

당신의 옷을 입고 당신이 말씀해 놓은 교리를 공부하는 이른바 당신
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당신을 파는 이런 짓을 얼굴하나 구기지 않고
뻔뻔스러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교에서나 있음직한 혹세무민
의 소행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부처님!

지금이 어느 때라고 이런 샤머니즘이 횡행해야 되겠습니까? 한동안
마치 중세 구라파에서 한동안 치부에 여념이 없던 살찐 「카톨릭」의 성직
자들이 「면죄부」라는 부적을 팔던 것과 너무나 흡사한 짓이 아닙니까?

이것이 그쪽에서는 종교정책의 한 불씨가 되었다고 하지만, 오늘 이
고장에서는 이 비슷한 일이 하도 많기 때문에 감각이 마비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당신의 가르침이 이 나라에서는 가끔 억울하
게도 미신과 동일한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실로 낮을 들 수 없는 일입니다.▲



여성의 출가와 계율

법경 정사
정각사주교
철학박사
동국대강사



~ 청정한 계율 _ 61

여성의 출가

여성의 출가는 부처님 당시 처음에는 허락받지 못했다. 여성 출가를 허용해달라는 간청이 수차례 있었지만 쉽게 허락되지 않았다. 기득권을 가졌던 남성 출가자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부처님께서도 승단의 앞날을 걱정하고 정법^{正法}의 훼손에 대한 염려가 커기에 쉽게 결정되지 못했다. 여성 출가로 인하여 승단의 질서가 혼탁해질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 출가를 가로막는 것은 석존의 걱정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기득권을 지녔던 기존의 승단 구성원들의 반대가 더 크게 작용되었다.

여성 출가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승단에서는 여성 출가에 대한 차별(?)이 심했다. 특히 여성 출가의 차법^{差法}은 더 엄격했고, 규율의 가지 수도 훨씬 더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비구계가 250계인데 반해서 비구니계는 348계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여성 출가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율법이 따로 정해져 있었으니 그것이 괄경법^{八戒法}이다. 아무리 오래된 여성 출가자라고 하더라도 금방 들어온 남성 출가자에게 먼저 예를 갖추어야 했고, 자라도 뒤에서 앉도록 정해졌다. 여성 출가자에 대한 차별임은 분명해 보인다.

남존여비^{男尊女卑}의 사고는 인도 또한 북방불교의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바라이죄에서부터 승잔죄^{僧殘罪}나 비일제에 이르기 까지 여성 출가자가 지켜야 할 계율은 훨씬 더 많았다. 그 가운데 몇몇 계율을 살펴보기로 하자.

바라이죄는 중죄^{重罪}라 하여 네 가지가 일반적이다. 이를 사바라이죄, 사중죄^{四重罪}라고 한다. 그런데 여성 출가자인 비구니에게는 4가지가 더해져서 8바라이다. 앞의 넷은 비구, 비구니 모두에게 적용되는 계이므로 공계^{共戒}라고 부른다. 그 공계는 사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는 네 가지의 계다.

그러나 비구니에게 적용되는 계는 불공계^{不共戒}라고 부른다. 불공계의 나머지 넷은 마촉수락계^{摩觸受樂戒}, 복타중죄계^{復他重罪戒}, 수순빈비구계^{捨順比丘戒}, 팔사성죄계^{八事成罪戒}이다.



신체 접촉을 하지 말라 - 마촉수락계

摩觸空樂戒

마촉수락계^{摩觸空樂戒}는 애욕심이 있는 비구니가 애욕심 있는 남자와 목덜미 아래, 무릎 위의 몸을 서로 접촉하거나 비비거나 혹은 서로 누르거나 견안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성적인 쾌락을 얻으면 그 비구니는 바라이죄가 된다는 것이다.

비구니가 신체를 서로 접촉하거나 비비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마촉수락계를 범하면, 승단에서 추방된다. 그런데 비구니는 추방되지만 만약 비구가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추방되지 않고 잠시 승단을 떠났다가 일정기간이 되어 다시 돌아 올 수 있다. 승찬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는 남녀의 차별이라 할 수 있다. 비구의 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비구니에 대해서는 엄격하기 때문이다.

다른 비구니의 죄를 숨기지 말라 - 복타중죄계

復他蓋罪戒

복타중죄계^{復他蓋罪戒}는 다른 비구니의 중죄(重罪-바라이죄)를 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숨기고 있으면 그 비구니는 바라이죄가 된다.

이 계는 어떤 비구니가 자기 제자가 바라이를 범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겨두는 경우로서,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을 은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래서 그 행위를 아주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인연담에 의하면, 투란난다 비구니가 자신의 제자인 순다라난다 비구니가 남자와 교제하여 임신하고 애기를 낳은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를 알면서도 자기 제자의 중죄를 숨기고 있었다. 그것이 탄로날까봐 숨긴 것이다. 탄로가 났을 때 그 비구니는 이와 같이 말했다.

“그 비구니의 불명예는 나의 불명예이다. 그녀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은 곧 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다. 그녀의 치욕은 나의 치욕이다. 그녀의 불이익은 나의 불이익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불명예, 이름을 더럽히는 일, 나의 치욕, 내게 불이익이 되는 일을 어찌 타인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

즉 자기의 명예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제자의 중죄를 고의로 숨기고 있었다. 다른 이유로 숨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숨겼다는 점에서 엄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그러나 비구의 경우는 다른 비구가 바라이죄를 범한 것을 알면서 숨기고 있었다 해도 바라이죄가 되지 않는다. 아주 가벼운 바일제에만 해당된다. 이 역시 남녀 출가자의 차별이라 할 수 있다.

빈척 당한 비구를 비구니가 따르면 중죄가 된다

- 수순빈비구계

隨順接比丘戒

수순빈비구계^{隨順接比丘戒}는 승가로부터 올바른 절차에 의해 빈척 당한 비구를 비구니가 따르거나 지도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비구가 빈척을 당한 사유는 악견^{惡見}이나 사견^{邪見}을 주장한 경우이다. 즉 악



견이나 사견을 주장하여 승가로부터 그것을 벼릴 것을 충고 받고서도 따르지 않고 고치지 않을 때 빈척을 당한다.

인연담에 의하면, 아랫타리는 비구가 ‘음욕을 누려도 불도 佛道의 수행에 방해되지 않는다’는 사견 邪見을 주장하여 승가로부터 빈척을 당하였다고 한다. 빈척을 당하면 승가에 머물 수 없고 승가 공동생활에서도 배제된다. 43가지의 권익마저도 정지된다.

그런데 이러한 비구를 비구니가 따르면 이 비구니는 완전히 추방되는데, 비구는 그렇지 않다. 겨우 바일제에 적용될 뿐이다. 참회하면 그 것으로 면죄 되는 죄이다. 역시 남녀 출가자의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어 보인다.

어쨌거나 비구니에게만 적용되는 이 수순빈비구계 俗隕接比丘戒는 빈척 당한 비구를 비구니가 따르거나 지도 받아서 안 되며, 음식이나 의복 등을 공양하거나 왕래를 할 수 없고 얘기도 나눌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비구니는 추방된다. 이 점에서도 비구니에 대한 차별은 엄하다.

비구니가 염심 染心을 가지고 여덟 가지 일을 모두 범하면
바라이죄가 된다 - 팔사성죄계 八事成罪戒

팔사성죄계 八事成罪戒는 8사 事 가운데 하나하나를 범하는 것은 바라이가

되지 않지만 팔사 事를 모두 행하면 바라이가 된다는 것이다. 그 팔사 事란 염심이 있는 비구니가 염심 染心이 있는 남자와 다음의 여덟 가지의 일을 모두 저지르는 경우이다.

1은 촉수 接手로서, 비구니가 염심이 있는 남자가 손을 잡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다.

2는 촉의 接衣로서, 옷자락을 잡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다.

3은 공립 積立로서, 나란히 함께 마주 보고 서 있는 것이다.

4는 공어 積語로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것이다.

5는 공기 積氣로서, 함께 약속해서 가는 것이다.

6은 대남자래 待男子來, 남자가 오는 것을 수락하는 것이다.

7은 입병처 入屏處, 병풍 뒤에 들어가는 것이다.

8은 신상근기 身相近寄, 나쁜 것을 수락하기 위하여 몸을 가까이 하여 다가가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를 비구니가 모두 범하면, 바라이죄가 된다. 승단에서 추방된다. 그러나 비구의 경우는 이를 범하여도 승잔죄나 바일제로서 추방되지 않고 참회를 통해 곧 면죄 免罪된다. 역시 차별이 있다.

여성으로서 출가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출가자로서 공동체 생활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인 듯하다. 차별이 있어 수행의 길은 더욱 험난하다. ▲

참 감사합니다.

이옥경

수필가·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야 두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잃은 게 있으면 얻은 것도 있기 마련, 그로 인해 깨달은 것도 적지 않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내가 얻은 가장 큰 소득은 일상의 소중함을 돌아보게 된 일이다. 보이지 않는 올가미에 갇힌 것 같은 압박감 속에서 나는 불과 반 년 전쯤까지 누려왔던 평범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이었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됐다.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또 오늘 같을 그저 그런 날이 너무도 그리웠다.

자유에 대한 갈망도 절실했었다. 코로나19 확산 공포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러온 단절감과 무력감 속에서 나는 비로소 매사 자유로웠던 지난날들에 깊이 감사했다. 걸음마를 할 때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는 세상, 포옹은커녕 따뜻하게 손잡는 일조차 허용되지 않는 세상, 마주 앉아 하하 호호 수다 삼매경에 빠질 수 없는 세상, 혹시 이 사람은 보균자가 아닐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는 세상, 언제 어디서나 바이러스 감염에 전전긍긍해야 하는 세상이라니… 채미없다. 질병이나 재난 영화 속 상황을 현실과 맞닥뜨리면서 내가 살아온 세상이 얼마나 복 받은 세상이었는지도 알게 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전제가 있어서 그렇지, 평생 처음 맞는 긴 휴가라고 생각하니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도 그럴듯했다. 적당한 계으름



을 친구 삼아 노닥노닥, 묵혀 두었던 책을 원 없이 읽고, 보고 싶었던 영화를 마음껏 보고, 친정 엄마의 손맛을 더듬어가며 소박한 밥상을 차렸다. 어느 날은 베란다에 쟁이둔 잡동사니를 뒤져 반쯤 내다 버리기도 했고, 어느 날은 옷장 정리로, 또 어느 날은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일로 시간을 보냈다. 외로워질 때면 그리운 이들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욕심내며, 너무도 바쁘게 살았었노라, 반성문 같은 긴 손 편지를 썼다.

새벽이면 바다에 나가 일출을 보기로 했다. 오랫동안 꿈꾸어 온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닷가 소음에 이삿짐을 풀고 나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 반, 도시에 두고 온 안온한 삶에 대한 마련 반, 문득 문득 밀려드는 후회와 두려움에 서성여야 했던 십수 년 전의 기억이 어제 일인 듯 생생하게 되살아나 가슴이 뭉클했다.

하지만 염려와 달리 이곳에서의 삶은 안온했다. 멈추기가 어려웠을 뿐, 잠시 걸음을 멈추자 숨차게 달리느라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다. 덜 갖고, 덜 먹고, 덜 쓰고도 잘 살 수 있다는 느림과 절제의 미학, 그것은 욕심을 버려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행복이기도 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얻을 수 있는 즐거움으로 내 삶은 더없이 충만해졌고, 도시에서는 사금파리에 지나지 않던 소박하고 소중한 것들이 이곳, 산과 바다를 품어 안은 자연 속에서는 반짝반짝 빛을 내며 나를 응원해 주었다.

마음에 쉼표 하나가 필요한 날은 어디든 나가면 된다. 산과 들에는 온갖 나무와 꽃들이 때맞춰 짜을 틔우고 꽃을 피웠고, 너른 바다는 뜨거운 태양 아래 하얀 포말로 부서지며 근심과 욕심을 씻어주었다. 멀리 백두대간을 타고 달려와 소나무 숲 사이 눈부신 하늘을 흔드는 청량한 바람에 몸을 맡기면 가슴 저 깊은 곳에서 좋다, 정말 좋다는 탄성이 저절로 터져 나오곤 했다.

어둠이 내리면 하나 둘, 그라움 같은 불을 밝히는 항구의 풍경도 경겨웠다. 그 불빛에 기대어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시간도 아름다운 유혹이었다. 그저 견뎌내는 것과 다름없었던 부초의 삶에서 벗어나 비옥한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느낌이랄까. 기다리지 않아도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보내지 않아도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다. 자연은 내게 초조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급해 하지 말라고. 늦어도 괜찮다고 말해 주곤 했다.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돌아보면 견뎌낼 만큼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미움이나 고통, 분노의 격랑도 지나고 나면 삶의 이정표가 되어 준다. 그리고 나니 이제야 알겠다. 유유히 흐르는 깊은 강물의 그것처럼 큰 변화 없이 조용하게 흘러가는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것인지, 코로나19의 격랑 속에서 이렇게 또 하나를 배운다.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줄을 잇는 세상인가. 코로나19에 속수무



책으로 노출된 전 세계 77억 9천여 명의 안위가 빌등에 떨어진 불안 지금도 실종된 아이를 찾아 수십 년 간 길 위에 선 부모들이 있고, 난치나 불치병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들이 있으며, 묻지 마 폭행·살인사건의 희생자들, 연애·결혼·출산·집 마련·인간 관계·꿈·희망을 포기한 칠포 시대 청년들, 교통사고나 각종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그래도 감사할 일이 더 많다. 굳이 최고여야 할 까닭도, 꼭 최선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크게 아픈 곳 없으니 다행이고 작은 집 한 캔, 남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될 만한 살림살이, 정 많은 가족과 벗들이 있으니 이만하면 성공한 삶이요, 매일이 감사해야 할 날들이다.

코로나19가 준 또 다른 교훈은 이런 깨달음이 순순히 오지 않는다 는 사실이다. 심하게 앓고 난 후에 건강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되고, 불행의 늪에 빠진 후에야 행복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것처럼, 지루할 만큼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운인지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우려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저당 잡히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간신히 고비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방심하다가는 소 앓고 외양간 고칠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밀린다왕문경』에

도 ‘때가 돼서야 행하는 노력은 할 일을 다 하지 못한다. 미리 기울이는 노력이야말로 할 일을 다 한다.’라는 말씀이 있다. 화를 당한 뒤에야 그 잘못을 뉘우치거나, 한껏 계으름을 부리다가 일이 코앞에 닥쳐서야 혀둥지둥하면서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는 가르침이 우리의 현실에 일침을 가한다.

곧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우리 모두가 소박한 일상에 감사하며 가진 것 없어도, 차고 넘치는 것 없어도 풍요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저 그날이 그날 같은 세상이 한시바삐 올 수 있기를… 아주 순한 마음으로, 아주 겸손하게 기도한다. ¶





출가자의 권위를 강조하고 재가자를 배척함으로서 불교의 위상이 찾아질 수 없으며, 자격을 갖춘 재가자의 지위와 역할이 보장됨으로서 불교의 위상과 재가자의 위상도 찾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출가자와 재가자는 상호 구도자^{求道者}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대승불교 지도자들이 몇 백 년이 지난 후에도 정통의 지위를 찾게 되었듯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출가와 재가의 염연한 차별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불교를 이끌어갈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며, 사부대중 화합의 길을 찾아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대승불교의 대표적 경전의 하나인 유마경은 재가보살의 대도^{大道}를 밝혀주는 요체로 평가받고 있다. 문자 그대로 세속^{世俗}의 거사인 유마거사는 부처님 법의 묘의^{妙義}에 통달해서 삼계^{三界}의 집착을 떠났고, 처자를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는 재가보살의 전형이었다. 가난한 이에게는 아낌없이 베풀었고, 이교도를 보면 바른 도를 가르쳤으며,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술집과 놀음판도 마다하지 않았으나 언제나 바른 자세와 정기를 유지했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 제자들의 잘못된 수행과 쳐신을 가차 없이 질책했으며,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는 유명한 법문을 통해 중생과 더불어 사는 재가보살의 수행과 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팔만사천 법문이 모두 각각의 중생들이 처한 맥락에 맞는 즉, 근기에 맞는 법문이었듯이 지금 불교가 사회를 향해 던지는 메시지가 과연 근기에 맞는 메시지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삶을 깨뚫어 보고 계셨다. 부처님 당시의 삶의 모습이 물론 오늘날처럼 복잡하지는 않았겠지만, 부처님께서는 사회 문화적인 구조에서 오는 고통까지 모두 파악하셨기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이는 해탈의 인연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의 불교는 공업중생인 동시대 중생들의 삶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은 앞과 뒤의 시간 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함께 굴리가지 않으면, 안되는 동시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오늘의 불교가 상구보리만을 추구한다면 마땅히 경계하고 걱정해야 되는 것이다. 하화중생하기 위해서는 중생의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뒤에 감춰진 구조적 진실까지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진실로 근기에 맞는 법을 펼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시대 공업중생의 삶을 보아야 할 것이다. 단지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서 온전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중생구제의 보살행은 대승의 오랜 전통이다. 사회화 되고 보편화 된 불교 이념을 바탕으로 중생의 현실적인 고를 해결하고,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하는 것이 재가불교의 개념이라 하겠으며, 아는 만큼 실천하고 베풀어야 한다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불교적 표현인 것이다.

깨달았다는, 또 공부했다는, 본성을 찾았다는 사람이 남을 힘들게 하고 세상을 탁하게 한다면 그 깨달음은 전혀 쓸모없는 것이다.

21C 재가불교가 나아갈 길이 바로 이러한 것이고 지향해야 하는 점이며, 생활과 불교가 나눠지지 않는 전법도량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지금의 한국불교는 사회의 문제를 통찰하고 불교적 해법을 제시할 내부능력이 빈약하다. 교단의 주류는 돈, 권력, 조직과 같은 세간적 운영기제가 지배적이다. 이런 현실을 헤쳐갈 해법은 통찰과 실천인 것이다.

재가불교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은인자적하지 말고 중생의 삶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알아야 한다.

14대 달라이라마 텐진 가쵸는 이렇게 말했다. “종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민이다.” 지금 세상은 종교라고 하는 전통의 틀보다 연민, 자비와 같은 인간을 돌보는 가치가 더 중요한 시기일 수 있다.

오늘의 한국불교가 ‘연민보다 못한 종교’는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종교보다, 교단보다, 내가 승려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생에 대한 연민이다. ─



초여름 구주령 오르는 그길에
무심히도 고왔던 여인

초록 치마 바람에 소리 내며
웃음소리 찰랑인다

멀리 동해바다
하늘과 맞닿아 선 하나 그을 수 없다

봄이란 처녀
계절의 산길 지나
한 겹 한 겹 짙은 유혹을 깊게 한다.

* 구주령
경북 을진군 백암온천에서 영양군 수비면으로 넘어 가는 아리향고개



자비선 입장에서 본 명상과 깨달음 5

묘원화 전수
벽룡사



- 발표** 지운 스님 (보리마을 자비선 명상원 선원장, 한국 차명상 협회 이사장)
- 토론** 월호 스님 (행불선원 선원장, BBS 불교방송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진행자)

지운 스님의 자비선 수행에 꼭 필요한 명상코칭에 대해서 알아보자.

명상코칭은 명상을 바르게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기 위해 올바른 방향과 방법들을 수행자의 단계에 맞게 이끌어 주는 것이다.

명상코칭은 일반적인 심리 상담과는 다르다. 굳이 내담자의 정신적인 문제의 원인을 찾아 그 원인을 없앨 필요가 없다. 현재 수행자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여 명상 시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해 무상, 고, 무아의 삼법인을 이해하고 깨달아 생긴 지혜로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된다. 이때 생긴 지혜는 망설임 없이 결정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수행자는 우유부단하거나 망설이고 의존하지 않게 된다.

명상코칭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승기신론』에 의하면 마음의 본성(성정본각 性淨本覺) 자체가 이미 명상코칭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성정본각 性淨本覺	명상코칭의 네 가지 조건
원인	공성 - 여실공경 知實空鏡	나에게는 무한 잠재력과 무한 가능성 있다.
	지혜 - 인훈습경 因薰習鏡	이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이미 내 안에 갖추어져 있다.
결과	법신 - 법출리경 法出離鏡	모든 문제의 해답은 내 안에 있다.
	자비심-연훈습경 慈薰習鏡	내 안에는 해답을 찾게 인도하는 길잡이로서의 선지식(지혜)이 있다.

명상코칭을 지도하는 길잡이에게도 필요한 것들이 있다.

먼저 인격적으로 열정, 안내, 연민을 갖추어야 하며, 코칭수단의 정확성을 갖추기 위해 수행체험, 초기경전과 대승경전, 청정도론, 아비달마, 유식, 중관 등의 논서의 학습이 선행되어야 하고, 지도 경험에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심리학과 인체관련학, 사회학에 대한 이해와 심리상담 경험이 필요하다.

이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심리적인 관점과 계정혜 삼학의 관점에서 경론에 근거하여 코칭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하여 현재 수행자에게 필요한 수행의 방법과 단계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체험만 있는 길잡이는 꿀 먹은 벙어리와 같고, 이론만 갖춘 길잡이는 말 잘하는 앵무새와 같아서 바르게 인도하기가 어렵다.

길잡이는 수행자의 근기를 살펴 적절한 수행 주제를 주어야 한다.

탐욕이 강한 자에게는 부정관을, 분노가 많은 자에게는 자비관을, 무지가 강한 자에게는 연기관을, 산란심이 많은 자에게는 수식관을, 자아가 강한 자에게는 십팔계관을 제시하도록 경전에 안내 되어 있다.

길잡이는 수행자의 체험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코칭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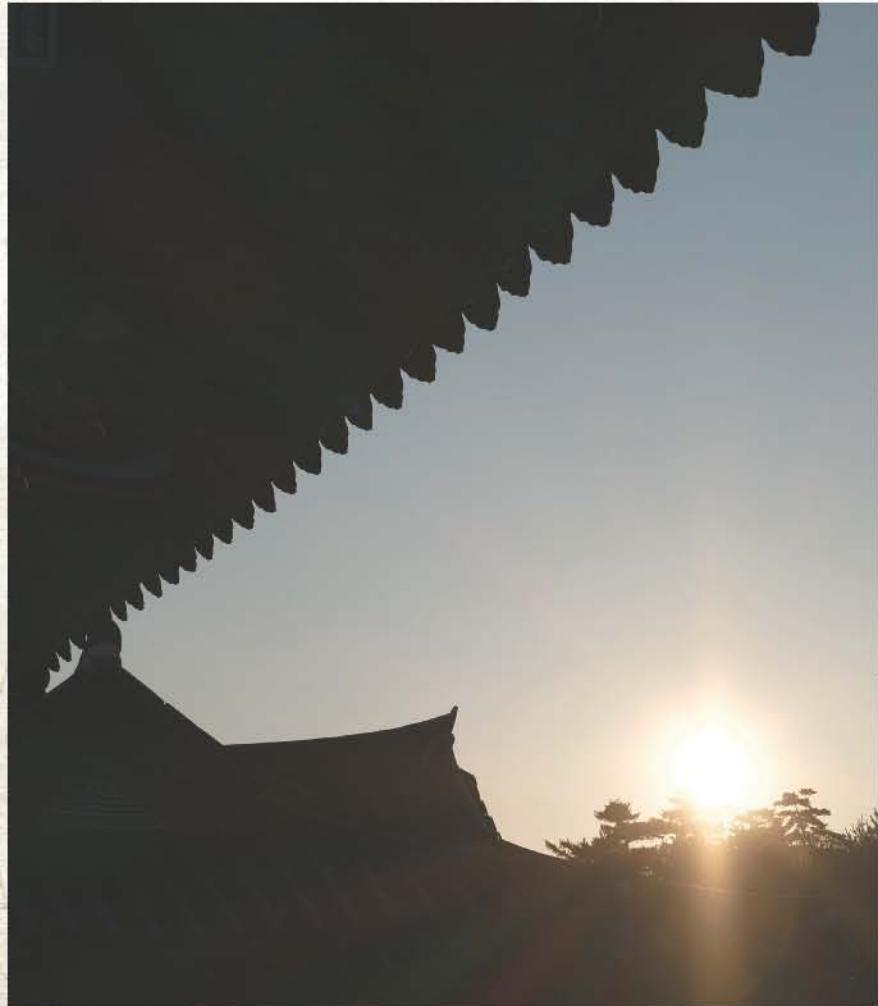
수행자가 현상만을 보고 있으면 현상에 집착하지 않고, 현상을 무상, 고, 무아로 관찰하도록 안내하여 지혜를 얻어 깨달음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또는 생각이나 감정을 적으로 돌려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억압하거나 사고 작용을 끊어버려 아무 생각이 없는 자리를 고수하는 잘못된 수행도 지적하여 그러한 수행은 지혜가 개발되지 않아 깨달음을 얻을 수 없음을 알려주어 바른 길로 인도한다.

바른 명상에는 이처럼 명확한 수단과 단계가 필수이다. 여기에 동기는 더없이 중요하다. 가장 궁극적인 동기는 보리심이다. 마지막으로 길잡이로서 스승과 도반이 꼭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자비선 명상'이야 말로 보리심을 일으키는 명상이라고 지운 스님은 말한다. ┌



재난을 이겨내는 방법



신흠(申欽)
1566 1628,
조선중기 문신

재앙이 이르려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은
성현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재앙이 와도
요행히 면하는 것은 성현이 할 수 없는 것이다

災至無愧
聖賢之所能
而災而幸逭
非聖賢之所能

재지무괴
성현지소능
이재이행환
비성현지소능

『상촌고(象村稿)』 33권
「무망지재설(無妄之災說)」



상촌 신흠(申欽, 1566-1628)은 명종 明宗 ~ 인조 仁祖 연간의 저명한 정치가이자 문학가, 사상가이다. 그는 1586년에 별시문과 別試文科에 급제한 이래로 여러 관직을 거쳐 인조 때에는 영의정에 오르는 등 정치인으로서 크게 현달 現達 하였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 보면 곡절이 많은 삶을 살면서 크고 작은 좌절을 감내해야 했다. 특히 그는 이른바 유교칠신(遺教七臣, 선조가 임종 때 영창대군 永昌大君을 부탁한 일곱 명의 신하)의 한 사람으로서 광해군 光海君 때 계축옥사 癸丑獄事에 연루되어 관직에서 쫓겨나 고향 김포에 은거하였고, 3년 후 폐모론 废母論이 제기되면서 춘천으로 유배되었다.

10여 년 남짓한 이 기간은 신흠에게는 일생일대의 암흑기였다. 그는 이 기나긴 암흑의 터널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전적^{典籍}을 섭렵하였고 『주역 周易』 무망괘(无妄卦)에서 실마리를 얻었다. 그는 짧막한 산문 작품인 「무망지재설 無妄之災說」에서 무망괘 육爻^{六爻}의 효사^{爻辭}에 등장하는 '무망지재 无妄之災'를 거론하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을 '재 灾'와 '화 火'로 구분하고, 전자는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은 것, 후자는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에 바탕하여 그는 계축옥사를 비롯하여 자기에게 닥친 일련의 재난은 자신이 초래한 '화'가 아니라 부득이하게 자신에게 닥친 '재'이며, 이는 성현^{聖賢}같은 사람들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과거의 성현들은 이러한 '재'가 닥쳤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서 당당히 거기에 맞섰고 여행을 바라지 않았으므로, 신흠 자신 역시 자신에게 닥친 '재'를 마주하여 과거 성현들이 그랬던 것처럼 당당히 맞서 극복하겠다는 생각을 피력하였다 것이다.

지금 우리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이라는 금세기 최악의 재난을 맞이하여 평범한 일상을 위협받고 있다. 이 재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화'가 아닌 '재'로 받아들여진다. '재'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신흠이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상황의 부득이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재'에 당당히 맞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

떻게 해야 하는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 수칙의 실천이 바로 그 방법이다. 재난 앞에서 '나 하나쯤 괜찮겠지'라며 여행을 바라는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시 한 번 다잡아야 할 때다.▲



해설 | 김광년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연구교수

한국고전번역원

우리 선조들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는 한문 고전의 수집·정리·번역을 통해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 11월 교육부 산하 학술연구기관으로 출범한 기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방귀희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충실대학교 겸임교수
<E美지> 발행인
컬럼집 <배제와 포용> 저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구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는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모두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치 아무 것도 갖고 있지 않은 양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읽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나는 글을 쓰고 있고 독자들은 이 대목을 읽고 있는 순간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하지만 웬지 지금은 하찮아 보인다. 옛날 시절이 그립고 그때가 정말 좋았다는 생각이 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시간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라 기대한다.

막내인 나는 내 또래 친구들보다 엄마 나이가 많았다. 초등학교 때 엄마 나이가 천살이었다.

그 당시 난 엄마가 마치 할머니처럼 느껴졌다. 다른 아이들 엄마는 세련된 원피스를 차려입고 학교를 방문하는데 엄마는 늘 한복을 입으셨다. 잊혀지지 않은 모습은 남색 치마에 하얀 저고리인데 난 엄마의 그런 옷차림이 창피했다. 얼굴도 곱고 자그마한 몸집이라 한복이 잘 어울린다고 어른들은 칭찬을 했지만 난 유행에 뒤진 구닥다리 엄마가 싫었다.

지금 생각하면 천 살의 엄마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60살, 70살, 80살 이렇게 나이 들어 늙어가는 엄마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다. 나도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었기에 예전이 그리워지지만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지금이 그래도 좋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서 헛되이 보낼 수가 없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다. 지금 내 곁에 누가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의 존재인가를 알아야 한다. 또한 그가 언제까지 내 곁에 있을 거란 안이한 생각을 해서도 안된다. 그 사람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날 수 있다. 그가 떠난 후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 해야 한다. 그래야 소중한 사람을 잊지 않고 또 설사 그가 떠난다 해도 후회가 남지 않는다.

난 엄마를 잊고 나서야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던 엄마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엄마의 희생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엄마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항상 엄마는 맨 마지막이었다. 나는 지금 참회 한다. 엄마한테 좀 더 잘해드렸어야 하는 건데 하면서 말이다. 아무리 참회하고 또 참회해도 소용이 없기에 더욱 후회스럽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지금 하는 일이란 말에도 동감한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일이 있지만 그 모든 일을 다 해 볼 수는 없다. 어떤 한 가지 일을 해야 하는데 내가 선택해서 지금 하고 있다면 그것이 소중한 일인 것이다. 그 일로 내가 살고 있고 그 일로 내가 발전하고 있으니 말이다. 남들이 하는 멋진 일을 보고 그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 일을 하게 된다 해도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어설플 것이다. 내가 하던 일이 내 몸에 맞는 나의 옷이기에 나에게 가

장 잘 어울린다. 엄마가 입었던 남색 치마에 하얀 저고리처럼 말이다.

지금 내가 하는 일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함께 하는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은 불교적 관점이다. 도법 스님 법문에 ‘지금 이 자리가 가장 소중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훔치면 도둑놈이 되고 나누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좋은 일을 해야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다. 예전에 좋은 일을 했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지금 나쁜 일을 하고 있다면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나쁜 일을 하면서 앞으로 좋은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도 대중들은 좋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이 착해야 한다.

결국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세 가지는 지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나도 이 글을 끝맺음하며 지금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새겨본다. ━



아름다움에 대한 단상

남혜 정사
단음사 주교



사람들은 사람이나 사물이 자신의 마음에 들 때 그 대상에 아름답다는 표현을 쓴다. 그렇다면 아름다움의 기준은 무엇일까. 아름다움의 사전적 의미는 모양이나 색깔, 소리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스럽고 좋은 느낌을 말한다. 그렇다면 아름다움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못생김, 추함, 더러움 등 여러 단어들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다섯 가지 감각기관에 속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자신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 본다고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 관심 있는 것, 좋아하는 것을 분별해서 본다. 불교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욕계라고 한다. 욕계란 안이비설신(눈, 귀, 코, 혀, 피부)의 5가지 감각기관에 속아 다섯가지의 욕망(오욕)에 빠져 사는 세계를 말한다.

사람들은 눈이라는 곳을 통해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눈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중 하나에 불과하다. 눈의 기능은 대상에 반사되어 오거나 혹은 대상이 보내는 빛을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보는 것은 눈을 통해 들어온 빛의 정보를 통해서 안식이 보는 것이다. 식(아뢰야식)은 우리가 과거 전생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삶의 정보들이 보관된 저장소이다. 과거 전생부터 현재까지의 안식의 정보도 아뢰야식에 저장된다.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전생부터 지금까지 보았던 대상들과 지금 보는 대상을 비교 분석해 새로운 대상을 만들어 내고 우리는 그 새로 만들어 낸 대상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한다. 여기에 욕망이 더해져 보고 싶은 것, 관심있는 것, 좋아하는 것을 분별해서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있는 그대로를 본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보고(우리는 빛의 전달 속도 만큼의 과거를 본다. 즉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지금의 별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10만 광년전의 별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는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봐왔던 것들과 비교해서 보게되고, 지금 보고 있는 대상만을 보고 생각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과거 전생부터 봐왔던 대상들에 했던 생각들과 비교 분석하여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 새로 만들어낸 생각을 지금 보고 있는 대상을 보고한 생각이라고 착각한다.

사람은 이렇듯 다섯가지 감각기관에 속아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게 되고 그 결과 좋아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되어 그 좋아하는 대상을 쫓으며 자신의 삶을 허비하게 된다.

불교의 연기법으로 볼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다 존재의 이유가 있고 존재의 의미가 있다. 인간이 생각하는 뚱이라는 더러운 대상도 구더기에게는 삶의 터전일 것이다. 우리는 들판에 핀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사실 꽃은 우리에게 잘보이기 위해 피는 것이 아니다. 꽃은 스스로 꽃 피울 뿐이다.

여실지견^{知實知見}이란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이다.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것, 참 쉬워 보이지만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

다. 불교에서 수행이란 있는 그대로를 알고, 있는 그대로를 보기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 이유와 의미가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나에게 있어 수행이란 결국 아름다움의 반대말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

연꽃이 되라
물들지 않으면 나를 지배할 수 있다.

사랑하는 자도, 사랑받는 자도 사라지고
사랑만 남는다.

아는 자도, 알려지는 자도 사라지고
앎만이 남는다.

꽃은 사람으로 화하고
나무는 벚이 되고
바위는 잡자는 영혼이 된다.



운명을 뛰어넘는 부처님 말씀 中

법상 스님
원광사주지
다음카페 '목탁소리' 지도법사



불교의 제행무상이라는 이치에 따르면 그 어떤 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

업이라는 것 또한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다. 우리의 행위가 매일 매일 달라지고 지속된다는 것은 받아야 할 업의 과보 또한 끊임없이 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구의 삼업, 신구의 삼업을 들이켜 보라.

매일 매일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어떤 행위를 해 왔는가를 놓치지 말고 살펴라.

삼업에 대한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삼업 일기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뉠 것이다.

첫 번째 단락은 몸의 행위를, 두 번째는 입으로 쏟아낸 말의 행위를, 세 번째는 마음에서 일으킨 온갖 생각의 행위들을 적는 것이다.

몇 일, 몇 주, 몇 달 동안 삼업의 일기장을 쓰다 보면 업의 일정한 패턴을 살피 수 있을 것이다. 주로 어떤 악업을 많이 짓고 있는지, 어떤 선업들을 많이 행하고 있는지, 복은 얼마나 짓고 있는지, 죄는 얼마나



짓고 있는지, 탐욕에 따른 행위가 많은지, 성냄에 따른 행위가 많은지, 다양한 업의 패턴을 살펴보면 이제부터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것이다.

물론 전생부터 이어 온 내가 모르는 업들은 제쳐두더라도 삶에 대한 획기적이며 경이로운 성찰이 찾아 올 것이다.

업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선한 것들의 종류와 악한 것들의 종류가 있다.

말로써 하는 구업을 지을 때도 칭찬을 하거나, 조언을 해 주거나, 진리를 설해 주거나, 따뜻한 격려를 해 주는 등의 선을 베푸는 행위가 있을 수 있고, 비난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이간질을 하거나, 꾸며낸 말을 하는 등의 악을 행할 수도 있다.

마음으로써 하는 의업 또한 마음속으로 미워하거나, 성내거나, 욕심내거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등의 악한 것들이 있고, 사랑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내며, 소박, 정직, 지혜, 나눔 등의 아름답고 선한 것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행하는 거의 모든 행위는 선하거나 악한 쪽으로 향한다. 선한 쪽으로 우리의 업을 펼쳐내는 것, 바로 거기에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담겨 있다.

업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가장 큰 행위가 바로 보시 행이다.

선을 행하는 것, 내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업을 뛰어넘는 최고 단계의 실천 수행이다.

월급에서 일정부분을 떼어 내 불우한 이웃을 돋기 위해 사용하는 것, 또한 진리와 지혜를 많은 이들에게 전해 주기 위해 전법하는 것, 필요가 아닌 욕망으로 많은 물건을 사들이기보다는 꼭 필요한 것들만 소박하게 구입하여 쓰는 것,

내 것이 아니라고, 소모품이라고, 돈이 넉넉하다고 낭비하기보다는 물 한 방울이라도 아껴쓰고 균검절약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것,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두려움을 주지 않아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평안을 느끼도록 하는 것,

이러한 작지만 분명한 한 가지 보시의 행이 내 앞에 펼쳐질 앞으로의 삶을 하나 하나씩 바꾸어 간다.

이러한 이타적인 업의 행위야말로 내 삶을 바꾸고, 내 미래를 바꾸는 결정적인 요소다.

두 번째로 운명을 뛰어넘는 요소가 바로 수행이다.

마음에 욕망과 집착을 비우고, 번뇌와 아상을 놓고 비우는 삶, 그것이야말로 업을 뛰어넘는 비결이다.

내가 잘났다는 생각, 내가 옳다는 아집을 놓아버리는 것, 내 소유와 내 물건이라는 소유욕을 놓아버리는 것, 모든 판단과 분별을 쉬는 것, 시비 분별을 끊고 올라오는 모든 생각들을 묵묵히 지켜보는 것,

좌복을 깔고 앉아 좌선에 드는 것, 경전을 공부하고, 독경하며, 지혜의 말씀을 사유하는 것, 매일 아침이나 저녁으로 108배 절 수행을 하는 것,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명호를 염불하거나 다라니, 진언을 독송하는 것, 이러한 작지만 분명한 지혜를 닦는 비움의 수행이 내 앞에 펼쳐질 앞으로의 삶을 하나 하나씩 바꾸어 간다. 이러한 자리적인 청정한 수행이야말로 내 삶을 바꾸고, 내 미래를 바꾸는 결정적인 요소다.

이치가 이러할진대 점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며, 운명과 관상을 본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가.

사주팔자를 보며, 운명을 점치는 것은 이미 주어진 업을 더욱 강화시켜 더 이상 내 스스로 업을 변화 발전시킴으로써 업의 뛰어넘을 수 있는 본연의 무한한 능력을 축소시키고 만다.

사주를 점쳐 볼 바로 그 시간에 차라리 일체 모든 이들이 고통에서

소멸되고 평안하소서 안락하소서 행복하소서'라는 자비의 계송을 읊는 것이 더욱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더욱 지혜로운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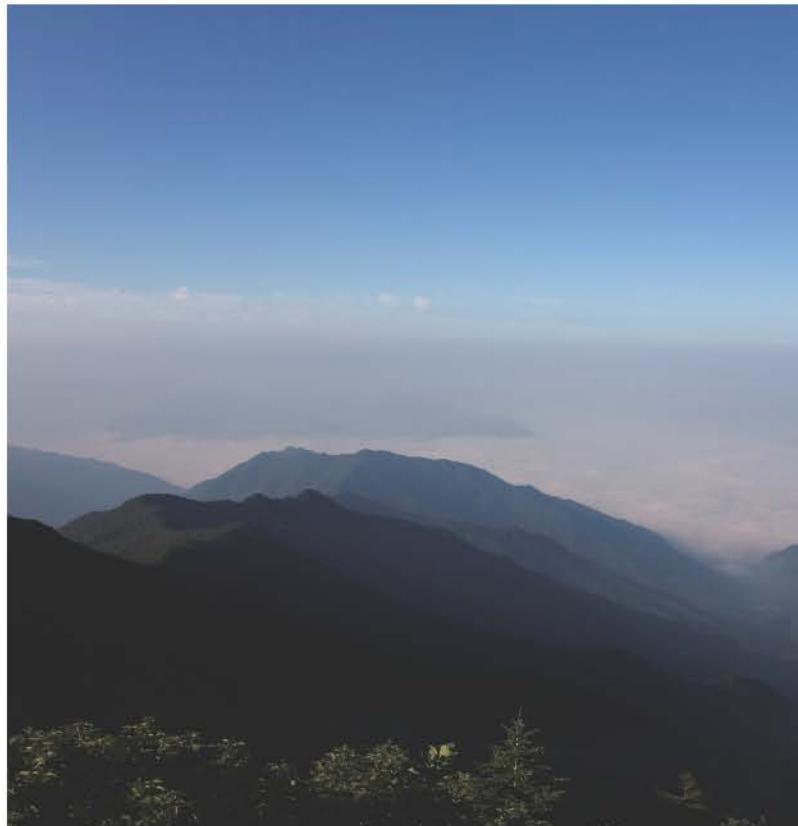
운명을 거부하는 것은 모든 고의 시작이며, 운명에 순응하는 것은 평범한 수준이지만, 운명을 스스로 바꾸고 개척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수행자가 가야 할 당당한 삶의 길이다. ━

- '법상스님의 목탁소리' 블로그



내 마음의 휴양지 통영 사랑도

자성 전수
법성사



사랑도는 통영시 사량면에 위치한 우리나라 남단 다도해의 한려해상 국립공원 중심부에 3개의 유인도와 8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진 남쪽의 봄바람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아름답고도 멋진 섬입니다.



사랑도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상도(윗섬)와 낚시꾼들이 주로 찾는 하도(아랫섬), 그리고 해글바위와 고래 모양의 바위가 멋진 수우도까지 3개의 멋진 섬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현재는 사량대교가 생겨서 윗섬과 아랫섬이 연결되어 바다 풍경과 석양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자유로운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도 이름에는 많은 설들이 있는데 뱀이 많은 섬이라하여 사량도라 부르기도 하고, 상도와 하도 사이의 흐르는 물길이 가늘고 긴 뱀처럼 구불구불하다고 유래된 설도 있고, 섬 두 개가 짹짓기 직전의 뱀처럼 생겼다는 설과, 어떤 남자가 상사병으로 죽어서 뱀으로 환생하였다는 설 등 다양한 설들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또한 사랑도에는 두 개의 유명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바다 안개가 섬을 감싸며 피어나는 해무입니다. 섬 전체를 신기루처럼 환상적인 분위기로 만들어 주는 사랑도의 해무는 멋진 장관을 이루어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 줄 것입니다.

사랑도 해무의 모습을 담기 위해 밤을 꼬박 새우는 마니아들도 많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스펙타클한 산행길입니다.

지리산, 불모산, 옥녀봉 등으로 이루어진 윗섬의 등반은 육지의 산들과는 다르게 4면의 바다를 보며 산행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등산코스입니다. 바다를 보며 산행할 수 있는 섬산행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바위로 된 봉우리와 능선을 연결한 종주길은 좀 험난한 길이기도 하지만 산행 하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느낄 수 있는 재미가 있어 연간 10만 명의 등산객들이 이 길을 걷기 위해 사량도를 찾는다고 합니다.

여러 봉우리 중 옥녀봉은 '한국의 100대 명산'에 꼽힐 정도로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옥녀봉으로 가는 길의 출렁다리에서 느끼는 짜릿함 또한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사량도의 봉우리는 험난한 코스이지만 다행스럽게도 올해 '힐링 숲 해안 둘레길'이 새로 나서 완만한 능선을 따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산이 싫은 사람들은 버스로 섬투어를 할 수 있고 특히나 아랫섬은

낚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이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사량도만의 다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하루빨리 많은 사람들이 사량도만의 멋을 경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돌아오길 바라며 코로나로 지친 모든 분들께 좀 더 힘내시길 응원 합니다.▲



싸우지 말아요

콜레우스 - Flame nettle

이태용
원예 교육가



피부색은 그저 피부색일 뿐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피부색이 존재합니다. 거칠게 구분하면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이렇게 세 가지 피부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 가지 색이 섞이고 섞여 딱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없는 수많은 피부색이 만들어졌습니다.

문득 어릴 적 들었던 피부색에 대한 우스갯소리 하나가 생각납니다. 하느님이 흙을 빚어 사람들 만들었는데, 빚은 다음 가마에 넣고 구울 때 너무 구운 사람은 흑인, 덜 구운 사람은 백인, 적당히 구운 사람은 황인 되었다는 이야기.

정말로 사람의 피부색이 이렇게 정해진 것이라면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까요?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피부색을 보며 덜 구워졌네. 더 구워졌네 놀렸겠지요. 하지만 사람의 피부색은 그런 방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대인의 또 다른 종교인 과학이 밝혀낸 바로는 사람 몸에 있는 멜라닌 색소의 많고 적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멜라닌 색소가 많은 사람 일수록 피부색이 짙어지고, 적은 사람 일수록 옅어질 뿐이지요.

색깔 전시회에 초대합니다

콜레우스는 고향인 열대, 아열대 지역에서는 여러해살이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추운 겨울이 있는 곳으로 오면서 한해살이풀로 바뀌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버리니 자연스레 생태가 바뀐 것이지요.

콜레우스를 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보다 형형색색의 잎입니다. 콜레우스는 초록, 빨강, 분홍, 보라, 노랑을 비롯해 다양한 색깔을 우리에게 선보입니다. 너무나 선명한 잎들의 색깔이 때로는 물감을 칠해 놓은 것 같아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게 할 정도지요. 하지만 콜레우스가 보여 주는 색깔이 단지 도화지에 칠해진 크레용 색깔처럼 단순했다면 아마도 그건 큰 매력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콜레우스의 진짜 매력은 분명 같은 색이건만 볼 때마다 그 느낌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햇빛이 깽깽 내리쬐는 날과 꾸물꾸물 구름이 낀 날,



흔자 있을 때와 무리 지어 있을 때, 밝은 색 화분에 있을 때와 어두운 색 화분에 있을 때, 콜레우스끼리 모여 있을 때와 다른 식물과 함께 있을 때 저마다 색깔이 다릅니다. 초여름에서 가을까지 열리는 콜레우스의 색깔 전시회를 보다 보면 자연이 만들어 낸 색깔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지 세상 감탄하게 됩니다.

잎은 잎, 꽃은 꽃

콜레우스에게 꽃의 존재는 미미하기만 합니다. 잎이 이야기의 흐름을 주도하는 주연 배우라면 꽃은 이야기의 빈틈을 메워주는 조연 배우 정도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잎을 위해 꽃을 잘라 버리기도 합니다. 꽃으로 갈 영양분을 잎으로 가게 해서 더욱 멋진 잎을 만들려는 것이지요.

그러나 단지 한 철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식물의 본능을 거스른다는 게 그리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잎의 '화려함'을 보려고 꽃의 '평범함'을 잘라 내느니 그냥 콜레우스 그대로의 모습을 즐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콜레우스의 학명인 'Coleus'도 실은 수꽃술의 모양을 뜻하는 그리스어 'Koleos[칼집]'에서 나왔습니다. 잎을 보겠다고 꽃을 무시해 버리기에는 아무래도 콜레우스에게 미안합니다.

모두 다 어깨동무

아이들에게 숲속을 그려 보라고 하면 거침없이 캐용을 집어 듭니다. 마치 머릿속에 숲이 들어 있기라도 하듯이 금세 나무며 풀을 그려 나갑니다. 잠시 후 도화지 위에는 현실의 숲과 상상의 숲이 함께 어우러집니다. 그 속에는 어느 하나 같은 모양의 나무도 없고 같은 색깔의 풀도 없지만, 모두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아이들만의 숲입니다.

그런데 그 숲 한가운데를 가만히 살펴보면 큰 나무들 사이로 보일 듯 말 듯 키 작은 콜레우스가 눈에 뜨입니다. 아이들은 과연 콜레우스를 알고 그런 걸까요? 물론 그랬을 리 없습니다. 단지 아이들 마음속에 콜레우스가 들어와 있을 뿐이지요. 아이들이 본 콜레우스는 그 잎이 빨간색이든 초록색이든, 크든 작든, 무늬가 있든 없든 모두 다 어깨동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게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아름답다는 진리를 콜레우스가 아이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천 년 만 년 살려고 애쓰는 우리 인간은 일 년만 살고 세상을 떠나는 콜레우스보다 훨씬 단수가 낮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게 우리 인간이니까요.

식물들이 볼 때는 쓸데없는 이유로 지금도 어디선가 싸우고 있을 인간들. 그들 앞에 조그만 콜레우스 화분을 하나 건네주고 싶습니다. ━

당신의 트롯맨은 누구입니까?

고진희
밀인사교도



얼마 전부터 전국을 뜨겁게 달군 TV방송 프로그램이 있다. 온 국민을 하나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내일은 미스터트롯'이다. 일반적으로 경연이나 오디션 프로그램은 인기가 좋은 편인데, 트롯이라는 장르로 대결을 펼친다는 점이 다른 방송들과 차별화 되어 더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송가인'이라는 대스타를 배출해 냈던 '미스트롯'을 이어 받아 남자 가수들이 출연한 미스터트롯은 이전 프로그램의 인기를 뛰어넘어 목요일 저녁만 되면 남녀노소 온 가족을 TV앞에 모이게 하는 트롯 신드롬을 일으켰다. 방송 때마다 매번 시청률 최고치를 경신하더니, 급기야 대국민 전화

투표로 진선미 3인을 결정짓는 마지막 생방송에서는 700만 툴이 넘는 어마어마한 통화가 몰리면서 방송국 컴퓨터가 다운되어 집계를 못 내리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생방송 역사상 유래 없는 이런 상황에 진행자인 김성주 아나운서를 비롯해 참가자들이 당황한 것은 물론,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도 모두 어처구니없고 황당했다. 이런 사태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JTBC 제작진들은 많은 질타를 받았고, 어쩔 수 없이 하루 뒤에 특별 방송을 편성하여 결과를 발표하는 헤프닝을 벌였다.

우리는 왜 이토록 트롯에 열광하는 것일까?

트롯은 우리 민족의 정서와 너무나도 잘 맞는 장르가 아닐까 생각한다. 귀에 쏙쏙 와 닿는 쉬운 가사와 한 음 한 음을 당겼다 놓았다 하면서 꺾어 부르는 창법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민족만의 가요이다. 그래서 트롯을 들으면 가슴이 몽글몽글 울컥울컥하면서 우리의 정서인 '한'이 느껴지는 것 같다. 가슴 아픈 이별 노래는 더 슬프게, 애틋한 사랑의 노래는 더 애달프게 들리는 이유이다.

또, 트롯은 부르는 가수에 따라 같은 노래도 다르게 들린다. 어떤 부





분을 어떻게 꺾느냐, 어느 소절을 어떻게 눌러 부르느냐에 따라서 노래의 감정 선이 달라진다. 때문에 미스터트롯의 최종 7인을 두고도 가족 간에 응원하는 사람이 다 제각각이다. 우리 가족만 해도, 나는 들을 때마다 가슴이 끊어지는 임영웅의 노래를 좋아하고 남편은 맛깔나게 트롯을 불러 제끼는 영탁을, 딸은 구수하게 꺾기의 달인 이찬원의 친팬이다. 하지만,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어른 감성으로 깔끔하게 트롯을 부르는 신동 정동원이나, 트롯과 성악을 절묘하게 조화시켜 부르는 가창력 짱 트바로티 김호중, 오랜 가수생활로 누구보다 노련미가 돋보이는 신사 장민호, 여자 가수들의 노래도 환상적으로 소화해내는 김희재 모두 각자 나름대로의 매력이 다 달라 듣는 재미가 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야 되는 시간이 많아진 탓에, 미스터트롯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사람들은 트롯을 들으며 무료한 시간을 달래고 마음의 위로도 받았다. 이제는 종방을 했지만 그를 이어 받아 '사랑의 콜센타'라는 제목으로 7인의 트롯맨이 전화로 신청곡을 받고 즉석에서 시청자가 신청한 노래를 불러주는 프로그램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가수들이 미리 준비해 온 곡들이 아니라, 전화 통화가 연결된 팬들의 요구대로 가사를 바꿔 불러 주거나 듀엣으로 부르기도 하는 등 팬들과 소통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여러 분야의 노래를 불러주는데, 어디서도 보고 듣지 못할 무대들이라 참 신박하다.

이들은 노래로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온 인생으로도 우리에게

따듯한 위로가 되어 주고 있다. 미스터트롯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하루아침에 대 스타가 되기까지 이들 중 대부분은 트롯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힘든 생활고를 겪었다고 한다. 군고구마 장수에 택배배달 등 안 해 본 일이 없을 정도로 어렵게 살아오면서도 꿈을 버리지 않고 한 길만을 오롯이 걸어 온 트롯맨들의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를 힘겹게 살아내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울림이 되고 있다.

나이 든 어르신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트롯이 이제는 세대를 넘어 젊은이들한테 까지 사랑을 받고 있다. 자칫 잊혀져가고 사라져 갈 수도 있었던 우리만의 가요가 다시금 많은 이들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다행인 일은, 기특하게도 정동원 같은 어린 트롯 신동들이 맥을 이어가기 위해 트롯 가수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K-팝으로 전 세계 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처럼, 머지않은 미래에 대한민국을 넘어 트롯에 매료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또한 번 K-트롯이 울려 퍼질 날이 꼭 다가오기를 당당하게 기대해 본다. ━



찻잎을 따는 시기에 따른 차 종류

김정애
다도전문가
정각사교도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녹차를 작설차라고 합니다. 작설차란 말은 송나라때 어린 찻잎의 모양이 참새의 헛바닥과 닮은 것에서 유래되었고 조선 중기 이후에 작설이 보통 명사화 되어 잎차라는 말로 함께 불리게 되었습니다.

차나무는 크게 소엽종과 대엽종으로 나뉘는데 소엽종은 중국과 일본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고 대엽종은 중국 운남 지방에서 자생하며 홍차용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재래종은 소엽종으로, 대표적으로 하동과 보성지역의 차나무가 여기에 속합니다.

원래 차나무는 크게 자라지만 찻잎을 따기 수월하게 하고 수확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지를 해주어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근처 일본은 지역적 특성으로 소엽종과 다른 종을 교배한 개량종을 많이 재배하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래종이 일본의 개량종에 비해 찻잎을 수확하는 기간이 비교적 짧고 잎이 작은 것입니다.

차는 24절기와 연관되어 나뉘어지는데 청명^{清明}과 곡우^{穀雨}를 중심으로 청명이전에 채엽한 잎으로 만든 차를 화전차^{火前茶}, 청명 이후 곡우 전에 채엽한 잎으로 만든 차를 화후차^{火後茶}라고 합니다. 화전차는 땅이 가장 기름진 시기에 봄을 준비한 새순만을 수확한 것으로 맛과 향이 응축되어 있어 최고급차로 여겨지나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성상 화전차를 생산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연간 3~4회의 차를 수확하며 찻잎을 수확하는 시기에 따라 첫물차, 두물차, 세물차, 네물차로 나눕니다. 봄에 채엽한 찻잎으로 만든 첫물차는 감칠맛이 좋아 최고급차로 인정받고 있으며, 찻잎을 따는 시기가 빠를수록 차의 맛이 부드럽고 향이 좋습니다. 반면 채엽시기가 늦어질수록 찻잎이 커지면서 짙은 맛이 더해지나 수확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물차는 수확하는 시기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청명^{清明}전에 수확한 차는 명전차^{明前茶}, 봄비가 내려 땅을 기름지게 한다는 곡우를 전후하여 따서 만든 차를 우전차^{雨前茶}, 곡우 이후에 만들어지는 차는 세작^{細葉}(4월 중.하순), 중작^{中作}, 대작^{大作}이라고 불립니다. 명전차는 찻잎이

매우 어려 채엽량이 적고 잎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여린 녹차의 맑고 순수한 감칠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며 맛과 향은 차종에서 최고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우전차를 만드는 찻잎은 새끼 손톱 정도의 크기로 맛과 향이 응축되어 있는 새순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른 새벽부터 해가 뜰 때까지 채엽하고 맛이 순하면서도 끝맛이 달고 구수한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끔 세물차용을 우전차로 속여 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차를 물에 불려 찻잎의 크기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작은 곡우와 입하 사이에 채엽한 찻잎으로 어린 새잎만을 따서 만들어 구수하면서도 쌉쌀한감칠맛과 찻물색이 가장 맑은 푸른빛을 띠며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녹차라고 합니다. 또한 세작은 앞에서 언급 했듯이 찻잎의 모양이 참새^{*}의 혀^ㅎ를 닮았다고 하여 작설차^{*설차}라고도 불리는데 <동의보감>에서는 작설차를 두고 기를 내리게 하고, 뱃속의 오래된 음식을 소화시키며, 머리를 맑게 해주고 이뇨 작용을 해 당뇨를 치료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작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그 품질이 우수하여 전 세계적으로도 각종 콘테스트에서상을 받고 여러 페스티벌에 소개되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찻잎의 크기에 따라 입하부터 5월 중순까지 채엽한 잎으로 만든 중작과 그 이후에 채엽한 잎으로 만든 대작은 맵은 맛을 내고 값이 떨어지는 특성상 현미등과 혼합하여 현미녹차로 마시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첫물차를 끝낸 6월 하순부터 7월 상순까지 채엽한 찻잎으로 ‘두물차’를 만들고 8월 상순부터 8월 중순까지 채엽하여 ‘세물차’를, 9월 하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채엽하여 ‘네물차’를 만듭니다. 차를 수확하는 시기가 뒤로 갈수록 차의 질은 떨어지고 아린맛과 맵은맛이 강해 세물차나 네물차를 생산하지 않는 농가도 있습니다. 첫물차를 선호하는 이유가 두물차나 세물차보다 맛과 향에서 뿐만 아니라 영양소 면에서도 비타민 C와 아미노산이 2배정도 높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커피를 마실 때 원두의 품종과 원산지를 묻거나 따지며 개인이 좋아하는 원두를 선택하게 됩니다. 녹차를 마실 때도 자신에게 맞는 맛과 향을 찾게 된다면 어느 지역에서 재배하는 차인지 어느 시기에 따는 찻잎인지를 알아가며 자신의 녹차 취향도 가져보는 것도 멋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녹차의 우수성이 점점 알려지고 있는 지금, 다인으로서의 자세가 이런 것이지 않을까합니다. ━



멀리 달아나면 커지는 괴물

법일 정사
수인사주교



겁쟁이 돌쇠가 가장 무서워하는 오솔길을 지나가게 되었다. 비명소리를 듣고 놀란 눈으로 여기저기를 보는데 위험에 처한 산토끼를 구해주게 되었다. 산토끼는 생명의 은인인 돌쇠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건 줄 수 없겠지.”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는 가르쳐 드릴게요.”

돌쇠는 산토끼의 말대로 다음날 혼자 길을 떠났다. 평소 무서워하던 강에서 우글대던 악어들을 용기 내어 물리치고 무서운 뱀도 지혜롭게 잘 처리했다. 그렇게 한 마을에 도착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뒷동산에 사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괴물을 무서워했다. 괴물의 둉치가 코끼리보다 크다느니 눈에서 불이 나온다느니 상상에 상상을 보태어 두려워하고 있었다.

돌쇠가 그 괴물을 잡아 보이겠다고 나섰다.



산으로 올라 동굴 입구에서 본 괴물의 그림자는 코끼리보다 크고 무서워 보였다.

용기를 내어 동굴 속으로 덜어가니 크기가 점점 작아졌다. 그런 중 무서운 생각이 들어 밖으로 나오니 다시 커지는 것이 아닌가. 돌쇠는 깨달았다.
‘멀리 가면 커지고 가까이 가면 작아 진다.’는 사실을

동굴 깊숙이 들어가 보니 그 괴물의 정체는 아주 작은 개구리였다. 마을로 돌아온 돌쇠의 손에 잡혀있는 작은 개구리를 보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중 한 꼬마가 개구리에게 물었다.
“너 이름이 무엇이니?”

“난, 이름이 많아. ‘걱정’이라고도 하고, ‘근심’이라고도 하지. 그리고 가장 한심한 사람들은 나를 ‘괴물’로 여기고 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불러.”

우리는 팬한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를 만들어 괴로워하며 산다.
사서 고생이지. ■

야생화를 심어요

여순애
자석사교도



봄날 따뜻해서 마음마저 들뜨던 날!

사원에서 불공을 마치고 나오는데 전수님이 야생화를 심자고 하셨습니다. 들이나 산, 외진 곳을 가야만 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석대(지명)에 가면 판다고 하십니다. 나에게 생소한 경험이라 전수님을 따라 나섰지요. 꽃시장에 도착하니 너무나 많은 꽃가게들이 저마다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꽃과 나무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다육이만 파는 가게에서는 다육이의 세계가 무궁무진 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육이 꽃은 조그마한게 참 신비롭기도 했습니다. 다육이를 몇 개 샀습니다. 가게보다 큰 마당에 한가득 꽃을 심은 화분이 즐비한 곳에서 꽂잔디, 매발톱, 샤프란, 금낭화를 샀습니다. 라일락은 묘목이 없어서 조그만 화분에 심겨져 언제 나무로 성장할까 싶은 걸로 두 개 샀습니다.

전수님 말씀이 옮겨 심으면서 키운다고 하네요. 라일락의 보랏빛 꽃이 참 이뻤습니다. 꽂잔디는 원산지가 미국이고 4~7월에 개화 한답니다.

매발톱은 아래로 편 꽃에서 위로 뻗은 긴 꽂뿔이 매의 발톱을 닮았다

해서 지어진 이름이라네요. 금낭화 원산지는 중국과 한국이며 설악산에 많다고 하는데 산지의 돌무덤이나 계곡에서 서식 한답니다.

사원으로 돌아와 빈 화분을 챙겨서 먼저 다육이를 심었습니다. 꽂잔디와 금낭화는 사택 앞에 심고, 매발톱은 정원에 심고 라일락은 대문 옆에 심었으며 샤프란은 계단 옆에 두었습니다.

꽃과 나무를 심어보는 것이 처음이라 재미나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화분 보다는 흙마당에 야생화를 심어 놓으면 생명력이 길어 크게 손질을 하지 않아도 해를 거듭해서 더 많이 번식한다고 하네요.

평생을 배워야 한다더니 전수님께 좋은 걸 배웠습니다. 며칠 지나 사원에 갔더니 전수님이 둥굴레를 심으셨는데 꽃이 피었더라고요. 특히 내가 좋아하는 꽃이라 그런지 그 아름다움은 말로 설명이 안 됐습니다.

[천마산에 꽃이 있다]라는 책을 보았는데 계절 별로 천마산에 피는 야생화 이야기였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나도 야생화 보러 천마산에 가야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석사 마당에서 야생화를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넘 좋습니다. 꽃꽂이만 하다가 이젠 꽃을 재배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니 이것 또한 발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원에 가면 틈틈이 꽃과 나무에 관심을 가지려 합니다.
자석사가 한층 더 소박한 아름다움으로 다시 보여 질 것 같습니다.▲





심밀_{心密}, 즉 의밀_{意密}은 부처님의 마음의 비밀로 곧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지혜, 또는 삼매를 말한다. 삼매를 닦음에 있어 처음부터 마음을 텅 비우고 한 곳에 집중하기 어려우므로 관념을 어떤 대상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밀교수행의 기본이다. 우파니샤드에서도 이미 마음을 범아일여경_{梵我一如經}에 집중하는 방편으로써 어떤 빛을 발하게 하는 서방정토변상도와 같은 유상방편판이 있고, 또한 원시불교의 수정파에 있어서도 제법무아의 도리를 관하게 하기 위하여 백골관을 관하는 것 등이 있었다.

이러한 원시 인도사회의 요가행이 밀교수행법의 중심으로 들어와서『대일경』에 이르면 만다라의 실천을 통한 유상유가의 관법으로 발전되면서 3밀 중의 의밀인 요가로 완성되는 것이다. 이것은 관법_{觀法}·관념_{觀念}·관상_{觀象}이라고도 하며, 또는 삼매삼마지_{三昧三摩地}·삼마지_{三摩地}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거의 같은 뜻이다. 제법의 실상을 관하므로 관법이라 하고, 사리_{事理}를 사유하는 본존과 서로 섭입함을 염하므로 관념이라고 한다. 삼마지는 보현의 대보리심에 머무는 것으로 삼마지는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산란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밀교 의밀의 기본목적은 행자와 본존의 일체를 이루는데 있다. 본존은 성스러운 예배의 대상이지만 밀교에서는 동시에 본래의 자기가 본존이기도 하다.『대일경』「설본존삼매품」제28에,

제존에 세 가지가 있으니 이른바 자_字와 인_印과 형상_{形像}이다. 그 자_字에 두 가지가 있으니, 이른바 성_聲 및 보리심이다. 인_印에 두 가지가 있으니 유형과 무형이다. 본존의 몸에 또 두 가지가 있으니 이른바 청정과 비청정이다.

라고 설하고 있다. 먼저 밀교의 본존에는 종자와 삼매야형과 형상이 있다. 본존의 본서 등을 한 글자의 범자로 표현한 종자, 그것을 사물로 나타낸 금강저 등의 삼매야형, 인격체로 나타낸 형상을 말한다. 유형이란 보통 색상을 가지고 있는 존형과 지물을 말하며, 이들이 상징하는 청정한 보리심은 무형이라고 말해지는데『대일경소』에서는 일단 유상에서 무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해지고 있다. 그리하여 자심의 본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자심, 즉 대일여래는 모든 곳에 널리 스며 있으며, 마음 밖에 있으면서 마음 안에 있고, 형상을 초월하면서도 또한 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면목

面 目

面 낮 - 면, 밀가루 - 면 | 目 눈 - 목

① 얼굴의 생김새

② 낮, 을 대할 만한 체면

③ 사람이나 사물의 걸모습

흔히 체면이라는 개념으로, 얼굴의 생김새, 즉 용모를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음의 본성이 가장 중요함을 이르는 단어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본래는 불교에서 나온 용어이다. 깨달음의 경지에서 나타나는 마음의 본성, 즉 참모습을 뜻한다.



불교, 특히 선불교에서는 면목을 다른 차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의 본래 면목^{父母元生前本來面目}을 알면 깨달음을 얻는다고 했다.

여기서 면목이란 단순히 얼굴과 눈을 의미하는 것 아니라 인간의 인간임을 이룩하게 하는 본래의 진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 면목은 깨끗하고 모든 것이 비춰진다. 본래 면목 속에는 거짓이 없다. 진실하여 거짓이 없으니 진실불허^{眞實不許}하다.

따라서 면목이란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불성^{佛性}과 통한다. 불성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성질의 차이이다. 진면목도 그와 같아서 사람마다의 면목은 동일하지만 그 면목을 지키고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면목이 없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면목이 선다.”고 한다. ━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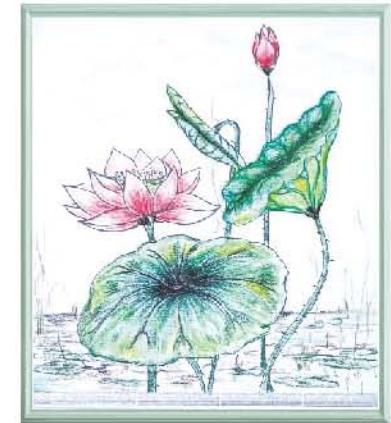
지난 호 독자 솜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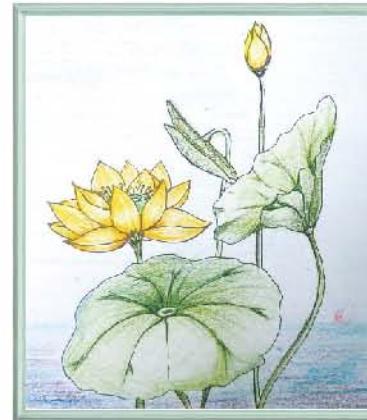
색을 칠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 서울 유영신



▲ 양산 이정희



▲ 서울 임미정

색칠해서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됩니다.

■ 이메일 : news@chongji.or.kr 카카오톡 친구추가 . 불교총지종 종보실
각 사원 주교님께 전달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됩니다.

불교총지종 법회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하반기 49일	매년 양력
신년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진호국가불공	5월 28일 ~ 7월 15일
중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해탈절(우란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중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고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사

신년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오국가·국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오국가 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사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오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음흉야오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 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수련원	28065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령리 359-11	(043)833-813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02)3452-7485
서울, 경기교구			
관성사	03041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승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 11번길 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릉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 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백일사	35335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409-1 (도마동)	(042)527-5470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황금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홍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증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령4길 266-78	(043)833-0399

대구, 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학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개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 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 201호(대명아르피나)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성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7길 7-3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붓다처럼 자유로운 삶

2600년 전 붓다는 맨발에 헌옷을 걸치고
남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살아도
왕보다 행복하고 지혜로웠습니다.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았고,
수천 대중과 함께 있어도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숲에 홀로 있으면 수행하기 좋았고,
먹을 것이 많으면 베풀 수 있어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면 인욕행을 하기 좋았고,
사람들이 우러러 존경하고 따르면
법을 전하기 좋았습니다.

부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괴로움이 없고,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붓다의 삶을 본받는 것
붓다처럼 되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 법륜 스님의 회망편지 중에서 -

올해 부처님오신날 연등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결국 취소가 되었다.
연등회가 취소된 것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령으로 진행되지 못한 이후 40년 만이다.
연등회가 취소되었지만, 우리는 부처님 자비의 소리를
집에서라도 함께 하기를 바란다.



불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 불교총지종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종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강정자	강민우	곽노선	권도연
권순감	김덕원	김도연	김민준
김봉래	김성민	김송자	김양숙
김윤서	김은숙	김종철	김희원
류경록	류승조	배도련	서금엽
손경옥	손재순	안종호	안한수
양진운	오승현	오채원	오현준
유광자	유정식	이영재	이인성
이혜성	일심정	장정원	장승엽
장민정	정재영	정화연	주건우
지 정	총지화	최순기	최재실
한경림	한미영	한명희	허지웅



- 불교총지종 홈페이지 총지미디어에서
구독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발행일 총기 49(2020)년 6월 1일
발행인 인선
편집책임 이선의
발행 불교총지종
주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화 02-552-1080~3
팩스 02-552-1082

6월호



불보살의 구제만 바라지 말고
불보살의 가르침을 실천하라.
진정한 복은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는 페서 온다.

- 환당 대종사 어록 -